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3 5 1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21호 【루계 제24799호】 주제104(2015) 년 1월 21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 OH 류 원 신 발 공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부장 안정수동지, 조 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 리재일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를 현지에서 평양시당 위원회 책임비서 김수 길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이 맞이하였다.

2013년 3월에 진행된 전 국 경 공 업 대 회 에 서 우리 당은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믿고 가까운 시일안에 인민생활에서 의 첫 사출운동신발생산기지이다. 전환을 일으킬 결심과 의지를 선포하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회고하시였다.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88년 11월 에 창립된 류원신발공장은 우리 나라 곳곳에 일뗘선 경공업생산기지들은 큰 인민소비품이 차례지게 하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품진 인민들이 쓰려고 하지 않는 질이 낮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몸소 씨를 뿌리 였다고 하시면서 류원신발공장의 생산 서 생산한 신발들을 보아주시는 시고 하나하나 품들여 마련해주신 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자 였다. 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보시면서 고귀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질좋고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는 위 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발공장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혁소 맵시있는 신발들을 안겨주시기 위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신발,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 마음쓰신 장군님의 업적을 감회깊이 마련하여놓으신 경공업의 튼튼한 종업원들속에서 연혁소개실을 통 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발을 생산

것으로부터 자그마한것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많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 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 면 생산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토대와 잠재력을 총폭발시킴으로써 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품진 한다고 하시였다. 렬실에 전시된 아동신발, 봄가을신발, 여름신발,겨울신발들과 축구화,롱구

화,다양화,다색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많은 성 과를 이룩했다고 평가 하시였다.

화, 륙상화를 비롯한 운

동신들을 보시고 공장

에서 신발생산의 다종

공장에서 생산정상화 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 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종 업원들의 열의가 대단 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새 제품개발정형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인 민들의 기호와 요구, 미 감에 맞는 신발들을 생 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 하고있는것은 좋은 일 이라고 하시였다.

발전시키는데서 류원신발공장이 맡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원신 지시하시였다.

렬실, 사출직장, 재봉직장, 제화직장 은 제품은 아무리 많이 생산하여도 소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신발생산 용이 없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생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 산량을 늘이는것과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정 은 통 지 께 서 김 경 류 원 신 발 공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와 문화적수준에 맞는 신발,세계적으 소비품은 하나하나가 인민들의 생활과





1 면 에 서

편리하면서도 맵시있고 가벼우면서도 있는 신발을 질긴 신발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현하며 파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말씀하시였다.

로 이름난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수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고 하시면서

다도 신발도안을 선행시키고 지식경제 하시면서 제품생산과 질제고,설비관리 아니라 우리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 책략을 바로세우며 그 실현을 위한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의 정보 와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파시하는 투쟁의 앞장에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시였다. 화, 자동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기술의 힘으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신발생산용섬유와 수지, 공장을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있어서나 나 견본품을 만들어 전시하거나 상점 리고 온 나라가 발을 맞추어 인민소비 올해에 인민들에게 질좋고 맵시있는 결정적으로 높이며 그 질을 개선하기 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정상화하며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할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하시였다.

부문을 비롯한 련판부문 성,중앙기판 뛰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숙원을 기어이 풀어드리자고 절절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원신 일군들이 인민들앞에 지닌 책임과 발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신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인민소비품생산 생산과 제품질제고에서 새로운 전환 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을 가져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

류원신발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공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공업부문 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원신발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시제품이 이 용을 쓰며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뜻깊은

본사정치보도반



떨쳐 나 뜻깊은 올 해 에 자주통일의 민족이 힘 나 가 열 H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가슴은 지금 새로운 신심과 락판으로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희망찬 새해의 첫아침 전체 조선민족이 힘을 합쳐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 을 가져옴으로써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 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위대한 원수님시대 통일대진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뢰성으로서 온 겨레의 심 장을 뜨겁게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온 겨 레의 절절한 통일념원과 시대의 지향을 반 영하여 뜻깊은 올해를 북남관계와 조국통 일운동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 한 가장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 로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다.

돌이켜보면 삼천리강토에 해방만세의 환호가 진감하던 격동적인 그때 우리 민 족이 오늘처럼 장장 70년세월 분렬의 고 통을 당하게 되리라고 과연 그 누가 상상 이나 하였는가.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 게 달라졌지만 유독 우리 민족만이 아직 도 분렬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 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는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 나가 다 통분할 일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뛰여난 슬기와 재능을 자랑하는 우리 민 족이 외세가 강요한 분렬의 력사를 끝장 내지 못한채 일흔번째 해를 맞이하게 된 것자체가 참을수 없는 수치이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조국통일을 절절 히 갈망해온 우리 민족이 조국해방 70년,

돌파구를 열어놓지 못한다면 통일은 더욱더 료원해질것이며 이 땅에는 영구분렬의 위험 이 한층 짙게 엄습하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은 지금 자주통일이냐 영구분 렬이냐 하는 중대한 력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

우리 민족은 뜻깊은 올해를 절대로 첫 되이 흘러보내서는 안되며 시대와 력사는 온 겨레가 한사람같이 떨쳐나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이 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다는 확 고한 신념과 강렬한 통일의지,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시려는 비범한 용단 과 숭고한 민족애가 구절구절 맥박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새해 조 국통일의 진군길에 나선 온 겨레에게 크 나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 체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 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 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북남관계의 대전환의 해,대변혁의 해로 빛내일 일념 을 안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온 겨 레 가 경 애 하 는 김정은 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 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관철을 위 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 의 표대이며 고무적기치이다.

악화된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도, 전쟁화약고나 다름없는 조 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고 평화번영의 새 한겨레, 한동포이다. 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는 실천적인 방도도 여기에 있다.

신년사의 중대제안들이 실현된다면 북 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이 일어나고 대 결과 적대로 꽁꽁 얼어붙은 삼천리강토에 6.15시대와 같은 경이적이며 환희로운 화폭이 장엄히 펼쳐지게 될것이다.

이 땅에 태를 묻고 민족의 넋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그토록 대범하고 격동적인 애 국애족의 호소에 어찌 가슴 높뛰고 심장 이 끓지 않겠는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게 될 올해 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 적투쟁으로 력사적인 신년사의 호소에 화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통일의 앞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 분렬의 장본인인 미국은 지 금 거세게 분출하는 우리 겨레의 통일열 기와 화해단합기운을 두려워하며 북남대 화와 판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온갖 비 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우리 민족을 리간시키고 대결을 고취하 며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있는 일체 외세 의 부당한 간섭과 침략책동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한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의지 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 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 여야 한다.

2.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관계개선 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자!

북과 남은 언제든지 통일조국의 한지붕 밑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한피줄을 이은

통일의 길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 대시하지 않고 그가 누구이든 나라와 민 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지향한다면 함 께 손잡고 나가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

동족을 《적》으로 보고 우리의 사상과 제 도를 반대하면서 일방적인 《체제통일》을 추구한다면 언제가도 북남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

승승장구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몇몇 인간쓰레기들을 부 추겨 날리는 어지러운 종이장따위로 흔들 릴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처럼 어리석은짓 은 없다.

누구나 눈앞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북 남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하며 동족대결에 광분하 는 한줌도 못되는 반통일분자들의 망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한다.

민족분렬 70년이자 조선전쟁이 일어난 지 65년이 되는 올해를 동족을 반대하여 외세와 함께 벌리는 전쟁연습이 없는 첫 해, 조선반도의 평화가 시작되는 력사의 해로 만들자!

해마다 강행되는 북침전쟁연습이 《년례 적》이여서 중단할수 없다고 강변하고 《방 어적》이라고 정당화해나선다면 백년이 가 도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할수 없고 핵 전쟁의 위험을 가실수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관계개선을 해치 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몰아오는 외 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반대배격 해나서야 한다.

3. 북남당국은 관계개선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화와 협상을

적극 전진시켜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 롭게 써나가자!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 어놓는데서 북남당국의 책임은 그 어느때 보다 무겁다.

지금 세계가 관계개선과 통일의 중대고 비에 들어선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커다 란 관심속에 지켜보고있다.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관계개 선의 제반 문제들을 풀어나갈 준비가 되 여있으며 북남대화와 관련한 중대립장을 천명하였다.

북과 남은 더이상 별치 않은 문제를 가 지고 무의미한 언쟁을 하면서 시간과 정 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할 의지가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거나 정략 적목적에 리용해보려는 대화는 백해무익 하며 시간랑비일뿐이다.

남조선당국은 대결과 전쟁밖에 초래할 것이 없는 무모한 《체제통일론》과 결별하 고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 조롭게 풀어나가며 편협하고 적대적인 태 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자세 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 을 위한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은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력사의 장 엄한 흐름에 적극 합류해나서야 하며 그 에 제동을 걸거나 훼방해서는 안된다.

4. 북과 남의 각계각층은 사상 과 리념,정견과 주의주장의 차 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합. 민족 대단결의 숭고한 리념밑에 통일 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진 군하자!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열다섯돐 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전민족적인 대경사로 뜻깊게 기 념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민족공동행사도 벌리고 계층 별통일회합도 성대하게 열어 우리 동포, 우리 겨레가 사는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함 성, 민족단합의 열기가 뜨겁게 차넘치게

북남사이의 체육문화 등 각 분야의 접 촉과 교류를 적극 추동하여 민족의 혈맥 과 뉴대를 잇고 민족의 우수성과 공통성 을 온 세상에 과시하자!

전체 조선동포들!

올해의 투쟁목표는 뚜렷하고 겨레의 통 일기세는 충천하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간다면 그 장엄한 위용은 세계를 경탄시키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유판국들과 국제사회 가 조선반도에서 동족대결을 부추기며 정 세를 악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며 북남판 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 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리라는 기대를 표 명한다.

통일의 앞길에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겹 쌓여도 조선민족의 슬기와 힘으로 기어이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 고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를 안아오려는 우 리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전도는 락관적이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 애국의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떨쳐 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 차게 열어나갈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

주체104(2015)년 1월 20일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정 당 , 단 체 련 합 정 부 , <u>0</u>| 화 회의 서 국 젉 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 업을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문 과업관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 가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

였다. 회의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 자!》,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을 통 일의 광장에 높이 받들어모시자!》,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 로를 열어나가자!》등의 구호들이 회의장에 나붙어있었다.

양형섭동지, 김양건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우당위원장, 근로단체,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6. 15공동선 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 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 관계자들을 비롯한 공화국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정부, 정당, 단체대표들이 회의에 참 가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의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 는 올해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 하여》를 토의하였다.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장,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해방 일 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 기 위한 거족적인 운동을 힘있게 벌 려나가기 위하여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희망찬 새해의 첫아침에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는 온 겨레의 절절한 통일념 원과 의지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통일애국의 기치이며 전체 조선민족 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거 족적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호소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조국통일과 처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확고히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으로 받아안고 그 판철에 한사 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언급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우 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북과 남, 해 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용단과 불타는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심장에 새기고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 책동을 과감히 짓부셔버리며 올해 에 기어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 변혁을 가져옴으로써 자주통일의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 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 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하

우리가 이미 올해에 조선반도에서 동족을 반대하여 외세와 함께 벌리 는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하기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제안을 내 놓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조국해 보고 반통일세력의 체 방 일흔돐을 민족적대경사로 경축하 려는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따라 조 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환경을 로 하는 한줌도 못되 마련하는데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과 남,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_ 히 분쇄할데 대하여 일치단결하여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 화를 몰아오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 습을 단호히 배격하고 올해를 동족 을 반대하여 외세와 함께 벌리는 전 쟁연습이 없는 첫해,조선반도의 진 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력사의 해로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외세를 배격하고 조국통일 의 앞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하 면서 우리 민족을 리간시키고 대결 을 고취하며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북과 남,해외의 전체 조선민족 있는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침략책 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동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단호히 대 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 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 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것이라 고 강조하였다.

조선반도문제에 관심이 있는 유판 국들과 국제사회도 동족사이의 대결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을 부추기며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을 하지 말고 북남관계개선과 통일 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지 지와 성원을 보내줄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 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 단합,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 조롭게 풀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

하였다. 피줄도 같고 언어도 같은 우리 민 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증오 하고 헐뜯으며 적대와 대결의 길로 나가는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 이 아닐수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당 국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우 리의 사상과 제도를 적대시하고 반

대하면서 《체제통일》을 추구한다면 언제가도 북남관계는 개선될수 없다고 강조 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은 눈 앞의 현실을 똑바로 제대결, 《제도통일》책 동과 동족대결을 생리 는 민족반역의 무리들 의 적대적망동을 단호 언급하였다.

북과 남은 이미 합 의한대로 조국통일문 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 가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북과 남은 자주,평 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민 족공동의 통일원칙으 로 합의하였으며 력사 적인 6**.** 15공동선언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

세상에 선포하였고 10. 4선언을 통하 여 그 실천강령도 마련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불멸의 조국통일원칙, 조국통일 강령이야말로 어느 일방의 주장만이 아닌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 한 민족공동의 통일대헌장, 민족최고 의 통일대강이라고 강조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야 하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기 위 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 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면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 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데 서 북남당국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 느때보다 무겁고 중대하며 서로 마 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관계개선

미국은 더이상 남조선당국을 동족 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을 풀어나갈 때에만이 북남관계에서 하여 강조하였다. 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부 열어나가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 대결에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시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것을 온 의 대전환,대변혁을 기대할수 있다

> 북남당국은 더이상 대결의 상대로 서가 아니라 북남관계발전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선도자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우리는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대범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되여있으며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 화를 통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 온다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하 고 부문별회담도 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올해에 북 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 오려는것은 우리의 확교한 의지이며 우리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민 족의 기대와 의사에 맞게 실질적으 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진정성》이니 뭐니 하며 상대방의 성의와 아량을 우롱, 모독하며 《대화의 전제조건은 없 다.》고 하면서도 조건부를 달아놓는 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해치는 반공

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기 한 력사의 장엄한 흐름에 적극 합류 해나서야 하며 그에 제동을 걸거나 훼방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북과 남의 각계각층은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올해에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 여 민족대단결, 민족대단합의 숭고 한 리념밑에 통일운동의 새로운 도 약을 위해 총진군하여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조선 민족이 6.15공동선언발표 15돐과 조국해방 70돐을 전민족적인 대경 사로 빛내임으로써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함성, 민족단합의 열기가 뜨 겁게 차넘치게 하며 민족의 혈맥파 뉴대를 잇고 민족의 우수성과 공통 성을 온 세상에 과시할데 대하여 언 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 을 관철하는 길에 악화된 북남관계 를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길도, 불순한 술책을 그만두어야 하며 북 전쟁화약고나 다름없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고 평화번영의 새시대 화국대결책동과 깨끗이 결별할데 대 _ 를 열어나갈수 있는 실천적인 방도

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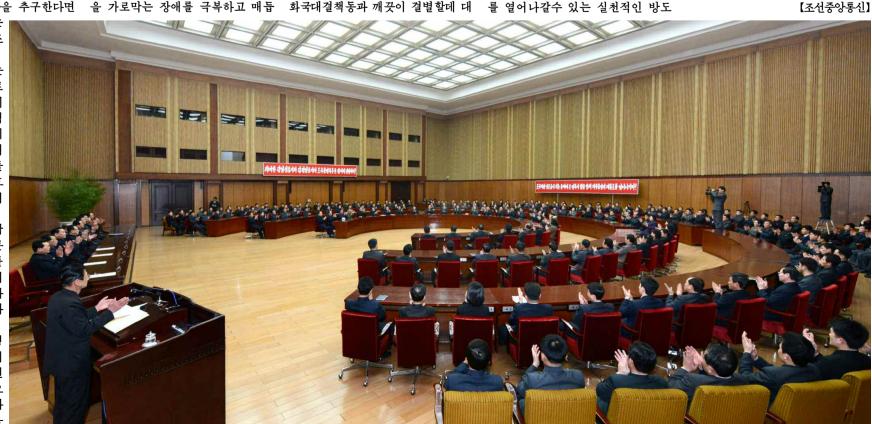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은 북남관계 이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된 다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 이 일어나고 불신과 대결만이 지배 하던 삼천리강토에 6.15시대와 같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화폭이 장엄히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언급 하였다.

이 땅에 태를 묻고 민족의 넋을 지 닌 사람이라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 범하고 격동적인 애국애족의 호소에 심장의 피가 끓지 않을수 없을것이 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화답해나서야 할것 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다 절세 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 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 인 호소를 높이 받들고 통일애국의 의지와 열망을 총폭발시켜 조국해 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 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대전환의 해,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 였다.

련합회의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에 게 보내는 호소문이 참가자들의 열 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마두산 혁명전적지를 원수님께서 경 애 하 는

영원히

마두산!

오늘 그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온 나라 군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마두산으로, 마두산으로 답사행렬 은 끊임없이 흘러들고 누구나 마두산으로 마음달린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은 시대정 신을 가다듬고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갈 각오를 더 굳게 다진다. 여기에서 우리 혁명이 지나온 길 돌아보고 가야 할 길 내다보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만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줄수 있음을 다시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두산 혁명전적지를 찾으신 주체 1 0 3 (2014)년 1월 22일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 는 우리 당과 조국의 력사에 길 이 빛날 뜻깊은 날로 아로새겨져 있다.

마두산혁명전적지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민족해방전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혁명정신의 고귀한 상징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르치신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자 주적혁명정신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 한 지도사상이다.

마두산혁명전적지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새로운 주체 1 0 0 년대를 이끌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 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를 과시한 신 념의 행로였다.

마두산혁명전적지는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 선인민혁명군을 령도핵심으로 하 는 전민항쟁으로 조국해방작전을 수행하시기 위해 국내의 종심 안주 지구에 꾸려놓으신 비밀근거지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 시기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게 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있던 안

중에서도 특별히 큰 의의를 가지 는 밀영으로서 우리 나라 서부일 한그루 나무, 하나의 샘터에도 대의 지역적령도거점, 주요군사작

전기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에 따라 자연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점 에 마두산밀영을 비롯한 여러 밀영 이 꾸려지고 많은 혁명조직들이 결 성됨으로써 조국해방을 위한 전민 항쟁준비, 최후공격작전준비를 적 극적으로 할수 있는 믿음직한 보루 가 축성되였었다.

1930년대 후반기에 벌써 앞 날을 내다보시고 국내깊이에 최후 공격작전기지들을 전개하신 우리 수령님은 참으로 천리혜안의 예지 를 지니신 절세의 위인,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였으며 강철의 신념을 지니신 위대한 령장이시

조국해방은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령도핵심으로 하는 전민항쟁으로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기 위한 항일대전을 벌리신 결과에 이룩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식민지민족해방 투쟁의 새시대를 개척하였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에 항일대전은 민족해방전쟁의 세계사적모범으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조국 해방업적을 력사에 길이 전하는 마 두산혁명전적지,

백절불굴의 신념과 강의한 의 지, 영웅적인 투쟁으로 위대한 승 리를 떨친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행로가 비껴있는 뜻깊은 성지,

위대한 력사의 증견자이고 우리 혁 명의 귀중한 재보인 마두산혁명 전적지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 주신 때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지 게 된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한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 룩 하 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전 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 주지구의 비밀근거지에 전개되였 시켜 조선혁명을 완수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지와 결심 에 받들려 마두산은 이 땅에 높이 솟 아오르게 되였다.

마음속에

마두산은 우리 당의 자주적혁명정 신의 또 하나의 고귀한 상징으로 빛 을 뿌리게 되였으며 당을 따라 만난 을 뚫고헤쳐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 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신념의 산악으로 굳건히 자리잡게 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전 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

마두산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전적지들은 천금 을 주고도 살수 없고 만들수도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당원들 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 는 중요한 교양거점이라고 가르치 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 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빛나는 혁명

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 이며 세대가 끊임 없이 바뀌여도 선 렬들의 넋을 꿋꿋 이 이어 투쟁을 계 속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의 명맥 마두산혁명전적

찾 으 신 지 를 경 애 하 는 원수님께서 천명하 신것처럼 우리 당 이 혁명전통교양을 줄기차게 벌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대 와 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만난시련 을 과감히 이겨 내고 혁명의 한길 을 꿋꿋이 걸어올 수 있었다.

경 애 는 원수님께서 마두산 에서 온 나라 천만

군민의 가슴속에 깊이 되새겨주신 백두의 혁명정신은 주체의 기치를 높 이 들고 조국번영의 빛나는 새 력사 를 펼쳐나가는 무한대한 힘과 열정, 위훈과 기적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조국해 방의 력사적위업을 민족자체의 힘으 로 이룩한것처럼 당의 령도따라 강 성국가건설위업을 제힘으로 실현하 여야 한다.

시대와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것을 요구하 고있다.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판을 맞 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 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 없 이는 강성국가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없으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다.

마두산혁명전적지는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 혁명이 좌절과 실패 를 모르며 승리에로 줄달음쳐온 비 결과 진리를 체현하고있는 뜻깊은 혁명전적지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 에게 항일혁명선렬들이 간직하였던 신을 심어주는 성스럽고 귀중한 교 양마당이다.

높 0[

마두산혁명전적지의 수많은 구호문헌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어떤 정신세계를 지니고 싸웠으며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간고하였던 나날에 혁명의 승리를 굳게 확신 하며 모진 시련과 난판을 뚫고헤 칠수 있었는가를 깨우쳐주고

《김일성장군 따라 광복 이룩하 자》,《백두삼태성 만세》, 《우리는 김장군 받드는 백두산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사령부를 멀리 떠나 살아도 수령님 을 그리며 한자, 수령님따라 끝까지 혁명할 의지를 담아 또 한자 신념 의 글발을 새기던 항일혁명선렬들 의 모습이 구호나무들마다에 비껴 있고 오로지 수령님만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싸운 순결무구한 마음들이 구호 문헌들에 담겨있다.

수령을 신념과 량심, 도덕과 의리 로 받드는 충실성의 전통으로 빛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 는것이 우리의 혁명전통이며 그것을 실물로 보여주는것이 혁명적구호 문헌들이다.

솟아있으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두산의 구호문헌들을 보시면서 가르치신것 처럼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닌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 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의 빛나는 귀감이다.

혁명전적지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믿고 따르 면 반드시 승리의 날을 맞이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싸운 항일혁명 선렬들의 고결한 넋이 천만군민의 가 슴에 생의 좌우명으로 깃들게 하시 였으며 내 나라,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 명선렬들의 불굴의 애국기개가 온 나 라에 맥박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두산

정녕 마두산에 새겨진 위인의 거룩한 자욱으로 하여 백두의 혁명 정신이 온 나라에 더욱 세차게 나래 치게 되였다.

온 나라가 마두산을 알고 마두산 을 안고 살고있다.

성스러운 마두산혁명전적지에

마음을 얹고 살며 투쟁해온 지난 1년간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업적이 더욱 빛나고 백두의 혁명정신이 더 세차게 나래친 나 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두산혁명 전적지에 거룩한 자욱을 남기신 뜻 깊은 날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더 꿋꿋이, 줄기차게 이어져온 력사로

하여 그처럼 의의가 크다.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모습과 높은 뜻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 있다.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죽어도 살아 도 내 나라,내 민족을 위하여 투쟁 하여야 한다고 절절하게 하신 그이의 말씀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 물을 안고 1 0월의 대축전장에 뗫 뗫이 들어설 열의로 온 나라가 끓게 하고있다.

마두산은 웨친다.

항일의 전구에 새겨진 거룩한 자욱을 잊지 말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자!

마두산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 원히 높이 솟아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박 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여 새긴 글

조국애가 불타고 민족애가 차넘쳐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는것을 인

생의 가장 큰 영광, 가장 자랑스러운

행복으로 여기였기에 그런 심장의 말

그 부름이 새해 첫날 이 땅을 진감

위대한 령도자의 신년사에서 내

나라,내 민족이라는 부름을 받아

안으며 인민들은 얼마나 격동하였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

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

붓을 들어 고백을 터친것이다.

을 조국과 나눈것이다.

내 나라, 내 민족!

하였고 세상을 흔들었다.

백두의 혁명정신만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줄수 있음을 다시금 확신하는 마두산혁명전적지 참관자들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애국애민의 세계,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념원을 받들어 강성국가를 기어

이 일떠세우려는 철의 의지를 새겨

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10월

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신들메를 든

위대한 강령이 있고 위대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백두의 혁

명전통으로 밝혀주시고 실천적모범

으로 보여주시는 절세의 위인을 따

라 새해진군길에 나선 우리 인민은

내 나라,내 민족을 위하여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

여 나아가는 길에 극복 못할 난판

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

령도가 있는 혁명은 승리하기마련

든히 조이였다.

이다.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참판하는 スム이미그 그이드이 츠바ㅁ이

【평양 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구호가 우리 혁명의 맥동인 양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서 세차게 고동치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참관하게 된다.

이번 참판에는 전군의 모범적인 군인들과 각급 군사학교, 혁명학원 에서 선발된 학생들, 원아들이 참가

20일 인민무력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앞에서 출발 모임이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 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모임장소에 모셔졌다. 모임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

맹 조선인민군위원회 위원장 엄향철의 보고에 이어 군판 허봉남, 사판들인 김 성혁, 리순옥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의 혁명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 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마두산혁명전적 지를 참판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참관자들이 항일혁명

선렬들처럼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 지 않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 직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신념의 기둥 을 억세게 세워주시는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오늘 우리 총쥔 병사들은 선군시대 청년영웅, 백두산혁명강군의 제일근위병,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창조자들로 값높은 위훈을 새겨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이 이번 참판을 통하여 백두의 대업을 이룩하실 경애하는 최고사령판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 념을 굳게 간직하여야 할것이라고 말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바쳐 보위한 항일혁명선렬들처럼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용위하고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당의 사상판철전, 당정책용위전에서 선구 자, 본보기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 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선군혁명투사 들로 철저히 준비해나갈것이라고 말 하였다.

혁명선렬들이 피와 넋으로 새긴

구호문허들의 글발을 심장에 쪼아박 고 오늘의 행군길을 최후승리의 길로 억세게 이어나가며 당이 제시한 군력 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관기간 선렬들이 지녔던 자기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혁명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판주의정신, 혁명적동지애, 빨찌산 식학습기풍을 적극 따라배울데 대하 여 말하였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행군과 숙영을 비롯한 모든 사업과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하여 백두산혁명강군의 위풍당당한 모습 과 일당백기상으로 뜻깊은 올해의 총 공격전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고무하 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태양기를 진두에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발걸음따라 승리의 진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 아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출발구령이 내리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기를 대오앞에 높이 모신 인민군군인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라고 쓴 붉은 기발을 휘날리며 마두산혁명전적지 에로의 행군을 시작하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

이겠는가.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민족 위하여》, 이것은 마두산혁명전적지의 한 나 무에 항일의 혁명선렬들이 아로새긴 글발이다.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구호앞에 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구호문헌 안내판에 씌여진 《내 나라》, 《내 민

족》이라는 글발을 보고 또 보시였으 며 그것을 몇번이나 외우시였다. 내 나라, 내 민족!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 나 열렬하고 가슴에 사무쳤으면 항

일혁명선렬들이 자기자신을 의미하

는 《내》자를 붙여 조국을 부르고 민 족을 불렀겠는가.

그처럼 투사들은 조국과 민족을 떠난 자신을 알지 못했다. 조국과 인 민속에서 자신을 찾았고 조국의 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속에서도 변질을 모르고 억 년세월속에서도 변색을 모르는 불변성, 바로 여기에 혁명가의 진 가가 있고 생명이 있으며 아름다 움이 있다.》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깔나무, 이깔나무, 백두산의 이 깔나무!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거연히 선 이

깔나무 어이하여 가슴에 파고드는

이 나라의 산과 산 곳곳마다 나무들이 자라고 들가에도 길 가에도 나무들이 서있다. 소나무며 잣나무, 분비나무

며 자작나무, 황철나무며 버 드나무… 모두 제나름의 이채로움이 있어 소

나무는 사시절 푸르청청하여 좋고 잣 나무는 열매로 이름이 났다. 자작나무는 희고 윤기도는 겉모양 이 류다르고 분비는 풍채로 눈길을

하다면 버들은 연연하고 황철나무 는 듬직한것이 장점일가?

그런데 소나무는 곧지 못해 아 쉽고 자작나무는 속이 단단치 못 하다. 분비나무는 뿌리가 얕고 황 철나무는 굵어도 추위에 가지를 뗜다. 버들은 바람따라 아지가 휘 여들고…

이깔만은 휘지도 떨지도 연하지 도 않다. 소나무와 다름없는 사철푸 름에 참대와 같은 곧음,분비가 지

명이자 자기의 운명으로 여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 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고 조 국과 민족을 위해 피와 생명을 깡그 리 바칠것을 각오한 심장에서만 내 나라, 내 민족이라는 부름이 터져나 올수 있다.

조국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고 인 민의 자유와 행복을 일생의 념원으 로 간직한 항일혁명선렬들이였기에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내 민족을 위해 투쟁하리라고 그처럼 심장의 고 백을 쏟을수 있었던것이다.

리 그리고 버들도 부러워할 무성함

보라, 산도 제일봉 이 나라의 성산

백두산에 흰눈을 이고 높이 서서

백나무,천나무를 굽어보는

이깔, 장하고 아름다운 백두산의

정녕 고백이였다.

까지 이깔은 다 지니였다.

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 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한 다는 신년사의 구절에서 가장 숭고한

사령부의 명령을 안고 눈보라천리 뚫고온 통신원이 소부대를 찾아 텅-텅- 이깔나무를 두드리던 소리도 귀

아름드리나무를 안아보느라면

이깔나무는 그처럼 대오를 불러

닌 우아함과 잣나무와 같은 깊은 뿌 투사들의 그 유정한 목소리를 들

전을 흔들듯…

고 만엽이 하나같이 청청한 그 모 지로 고향집지붕마냥 눈비를 가려

너를 사랑하는것이다.

리의것이다!

확고한 신심에 넘쳐있다.

사랑한다, 이깔나무를! 너는 빨 찌산의 넋과 기개를 상징한다.

본사기자

살아서도 굽힌 때가 없었고 죽어 서도 강대로 꿋꿋이만 서있는 백두 산의 이깔이다. 그것은 꺾이면 꺾 일지언정 신념과 절개를 굽힐줄 모 른 항일혁명선렬들의 모습그대로 이다.

눈비에도 바래지 않고 혹한에도 력 력히 떨치는 그 짙은 푸름은 만난시 련을 뚫고헤치며 수령님따라

기어이 승리의 봄을 맞이한 투 사들의 변할줄 모른 억센 기상 이다.

하 혁명신념 버릴줄 모르며 원쑤

들과 견결히 싸운 혈전의 발자취를 안았고 백두산 장군봉을 향해 머리 를 들고 치솟은 하나의 강대조차 생은 끝났어도 넋은 영원한 혁명선 렬들의 모습으로 갈마들어 백두의 이깔숲을 누구나 쉬이 못 뜨는것

그렇다.온 나라 사람들 백두산의 이깔나무를 그리도 사랑함 은 투사들처럼 따르는 마음 곧고 신념이 굳세고 어떤 풍파도 두 렴모르는 혁명가의 절개와 기개를 간 직하여서이다.

아니라.

리라.

백두산의 이깔나무는 이 땅에 사 는 천만사람의 모습!

이깔처럼 그 모습 변함을 모르

본사기자

이깔나무! 사람마다 너를 사랑하고 시에도 일으키는 혁명의 사령부의 목소리 노래에도 담는것은 곧으면서도 굳 를 전해주었다. 숙영의 밤엔 긴 아

습때 문일가 . 혹은 태고적

문일가. 아니, 백두산의 이깔나무앞에 서면 먼저 백두의 칼바람이 가슴속에

부터 이 땅에 사는 오랜 연고나

천리수해에 뻗친 줄기찬 생명력때

사나운 눈보라에도 맞서고 폭풍에도 견디는 튼튼한 줄기며 억 센 아지를 쓰다듬느라면 만고풍상 다 이겨내는 강한 정신이 마음속에 깃

든다. 백두산의 이깔나무는 다름아닌 항 조국해방의 피어린 격전을 목격한 일혁명선렬들의 모습을 그려보이는

이깔나무에 몸을 기대이면 사령판동지를 모시고 우등불가에 둘러앉아 《사향가》를 부르던

주었고 끝까지 혁명을 하고 기어 이 싸워이기리라 투사들 아로새기 는 심장의 글발도 소중히 받아안 았다. 가랑잎 깔고 쪽잠에 들며 이깔나

무를 베개삼아 기대였던 투사들 몇 몇이던가. 피흘리며 쓰러질 때 그 잎새너머로 조국의 하늘 그려본 전 사 그 얼마이던가.

오. 머나먼 행군길에 빨찌산의 길 동무였던 이깔나무, 항일대전의 포연을 마시며 자랐고

백두산의 이깔나무!

태고에 시작된 그 생명은 항일혈 전의 수만리길과 얽히여있고 그 깊 은 년륜엔 항일의 못 잊을 력사 스며 있거늘 백두산의 이깔나무여, 그래서

2 200여개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에서 지난해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고 많은 애국미를 바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선군혁명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자기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조국이 주는 전투입부로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수행하며 증산 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 려 끊입없이 새 기준, 새 기록 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해에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를 마련해주시고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여 농촌청년작업반원 들과 청년분조원들이 위대한 당

벌방지대 청년작업반, 청년분 조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들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서 선봉대, 돌격 대가 될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받들고 정보당 1 Ot이상의 알곡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어 가을 에는 풍요한 황금벌을 펼쳐놓

았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청년 작업반이 이 투쟁의 앞장에 섰 다. 청년작업반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정보당 1 Ot이상의 논벼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를 지력을 높이는데서 찾아쥐고 년초부터 력량을 총집중하였다.이 목표 를 수행하자면 논 정보당 4 Ot 의 유기질비료를 내여 토양속의

의 폭풍속에서 억세게 단련된 청년전위의 기개를 알곡증산투 쟁에서 남김없이 펼치도록 고무 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린 2 200여개 농촌청년작업 반, 청년분조들에서 지난해 알 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많 은 애국미를 바치여 나라의 쌀 독을 채우는데 기여하였다.이 성과는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청년전위들의 불같은 애국충정 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벌방지대에서 알꼭 정보당 10t 생산

부식질함량을 늘여야 한다는것 을 명심한 청년작업반원들은 토 양의 특성에 맞는 거름을 생산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 였다. 그들은 거름원천이 부족 하자 주저없이 밤잠을 잊고 떨 쳐나 열두바닥파기를 하면서 집 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 켰다. 몸소 청년작업반을 찾아 오시여 친어버이의 사랑과 믿음 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보답의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면서

난관을 뚫고나갔다. 결과 봄갈이전에 정보당 4 Ot 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전면 적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 다. 기계화를 실현하고 앞선 영 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이들은

논벼 정보당 1 1 t이상 생산하 고 많은 애국미를 바치여 나라 쌀독을 채우는데 기여하였다.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청년분 조원들은 알곡증산투쟁에서 청 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 전국의 앞장에 설 야심만 만한 포부를 안고 년초부터 정 보당 1 Ot이상의 알곡을 생산 할 목표밑에 첫 자욱을 힘있게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데 기적창조의 비결이 있다는것 을 확신한 청년분조원들은 이른 큰모를 전면적에 도입하기 위한 혁신의 불길을 지퍼올리였다.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여서 남들 이 시험적으로 해보라고 하였지 만 이들은 오늘의 투쟁에서 청 년전위들이 기수가 되라는것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라고 하 면서 주저없이 실천에 받아들이 였다. 씨뿌리기를 종전보다 앞 당겨 2월에 시작하기 위해 우 등불을 피워놓고 모판을 만들어 씨앗을 뿌리였으며 기온이 내려 가는 날 밤이면 담요들을 지고 달려나와 덮어주면서 모를 실하

이들은 어려울 때마다 청년분 조를 몸소 찾아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며 새 힘을 얻 고 떨쳐나 마른논써레치기를 앞 세워 물을 절약하면서 여러개의 아지를 친 이른큰모를 최적기인

게 키웠다.

열흘동안에 내였다. 그리고 앞선 물대기방법을 비 롯한 비배관리를 잘 짜고들 었다.

그리하여 청년분조에서는 정 보당 알굑 1 1 t이상을 생산하 여 계획을 147%로 넘쳐 수 행하고 많은 애국미를 바치여 온 농장에 우리 당이 키워준 청 년들이 제일이라는 감탄이 울려 나 9게 하였다.

재령군 북지협동농장 청년분

조원들은 사회주의농촌테제발 표 5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알곡생산에서 정보당 1 Ot수준 을 기어이 돌파할 결의를 다지 고 집체적토의를 거듭하여 한해 농사대책안을 구체적으로 세웠 다. 물절약형농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왕가물을 극복할 계획 밑에 정보당 질좋은 유기질비료 를 3 Ot이상 내고 마른논써레 치기와 영양알모에 의한 소식재 배를 전면적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렸다. 이들 은 아무리 조건이 불리하고 난 판이 앞을 막아나선다고 해도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점령 못할 고지는 없다고 하면서 모

결과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 하고 병해충피해를 막아내여 논 벼생육에 최대한의 유리한 조건 을 보장해줌으로써 풍요한 가을 을 펼쳐놓았다.

든 영농공정을 일정계획대로 진

가을철에는 애써 지은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해 포전에 이동식탈곡기를 설 치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힘

찬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한해 농사를 결속하였다. 그리하여 이 들은 정보당 알굑 1 Ot 7 8 Okg 의해나선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을 생산하고 자기들의 충정이 것을 보여주었다.

퓓

중산간지대의 청년작업반, 청 년분조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 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에서 알곡증산의 열 쇠를 찾아쥐고 최고수확년도수 준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완

맹산군 중흥협동농장 청년작 업반에서 최고기록돌파전의 불 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한 평생 포전길을 걸으시며 인민들 의 먹는 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 한마음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에 집단진출한 청년작업반 원들은 농장에서 제일 척박한 20여정보의 땅을 스스로 맡아 나섰다.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 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 을 떨치는것을 우리 시대 청년 들의 더없는 영예로 간직한 이 들은 비록 한해농사를 지은 경 험밖에 없었지만 당의 믿음에 보답할 결심을 안고 흙보산비 료를 비롯한 질좇은 유기질비 료를 생산하여 땅을 기름지게 걸구었다.

깃든 많은 애국미를 바치여 당 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고 결

중산간지대 농사에서 최고기록 돌파

다 물을 주고 김매기를 하면서 힘에 부칠 때마다 위대한 강하게 벌리였다.

과학농사시대에 모르고서는 기적을 창조할수 없다는것을 명

심하고 짬만 있으면 농업과학기 술을 학습하면서 지식수준을 높 여 모든 영농공정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해나갔다. 이들은 왕가물을 극복하기 위해 포기마

장군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지켜야 한다는 자각으로 다시 일어나 이랑마다에 구슬땀 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청년작업반원들의 피타는 노

력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였 다. 이 땅이 생겨 처음 보는 소 출을 내고 정성껏 고른 알곡을 애국미로 바친 청년들의 소행은 농장원들에게 불굴의 정신력이 기적을 낳는 원천이라는것을 다 시금 깨우쳐주었다. 의주군 홍남협동농장 청년분

조원들은 사회주의농촌테제발 표 5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당의 손길아래 억세게 자라난 청년전위들의 기개를 떨칠 각오 를 가지고 알곡증산투쟁에 떨쳐 나섰다. 지력이 낮고 불리한 자 연조건에서도 최고수확년도수 준을 돌파하자면 당의 의도대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해 야 한다는것을 명심한 이들은 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넣었다.

고 마리수를 늘이였으며 먹이문 제를 이악하게 풀어나가면서 사 양관리를 기술적으로 진행하였 다. 그리하여 정보당 3 Ot이상 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 여 밭에 실어내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강냉이종자를 심어 정성껏 가꾸었다. 삼복철에 네벌, 다섯 벌김매기를 질적으로 하면서 앞

제힘으로 집짐승우리를 꾸리

지게 하였다. 회창군 덕련협동농장 청년분 조원들도 전해보다 정보당 2t 을 증산하여 강냉이생산에서 최 고기록을 돌파하였다.

선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팔뚝같은 강냉이이삭들이 주렁

이들은 사람들의 눈밖에 난 돌모래땅을 맡아가지고 뼈심을 들여 걸구었다.

알곡증산의 가장 큰 예비는 자기들의 심장속에 있다는 자각 을 가지고 새벽과 저녁에 스스 로 떨쳐나 돌추기를 하면서도 진 흙원천을 찾아 흙깔이를 하였으 며 구운흙과 흙보산비료를 비롯 한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 여 발에 실어냈다.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확보하여 심고 겹재배에 의한 두벌농사방법을 받아들이 였으며 포기마다 물을 주면서 후 민산카리와 아미노산미량원소복 합비료를 잎에 분무하여 왕가물 을 이겨냈다. 집체적지혜를 합쳐 가면서 이삭목찔러주기, 개꼬리 잘라주기를 비롯한 앞선 영농기 술을 적극 도입하여 좋은 강냉 이작황을 마련하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한몸 서슴없이 내대는 진짜배기애국 자가 될 열망으로 온 한해 밭에 서 살다싶이 하며 투쟁한 보람 으로 이들은 강냉이수확고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고 많은 애국 미를 바치는것으로써 한해농사 를 의의있게 결속하였다.

전국도처의 청년작업반, 청년 분조들에서 청년들은 인민경제 계획을 조국이 주는 전투임무로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 이 수행하며 청춘의 슬기와 용 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새 기 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투 쟁의 앞장에 설데 대한 당의 뜻 을 받들고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였다. 그 과정에 강서구역 청산, 배천 군 조옥희협동농장 청년작업반 들과 평원군 원화, 락랑구역 송 남협동농장 청년분조들을 비롯 한 많은 단위들의 청년들이 지 난해 알곡생산에서 비약을 일으 키고 애국미를 바치여 우리 당 의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훌륭

히 수행하였다. 지금 각지 농촌들의 청년작업 반원들과 청년분조원들은 지난 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뜻 깊은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 쟁하여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한 자랑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뗫뗫이 들어서기 위 한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래명호

豆

프 등 높 은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투쟁이 있는 곳에는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 곳에는 혁명 적랑만이 차넘치고 전투적열 정이 끓어번지기마련이다.》

얼마전 우리가 제 1 4 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가족 부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김영철동무의 가정으로 취재길 을 이어갔을 때는 저녁무렵이 였다. 읍지구에 있는 그의 집 을 찾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노래가정》이라고 정담아 부르 며 안내해주는것이였다. 집앞

꽃피는 락원에 기쁨은 넘치고 인민은 한가정 자랑은 넘치네

해주듯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소리에 심취되여 집으로 들어서는 우리를 안해 리영실 녀성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영예군인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떠나서는 살

수도 일할수도 없습니다.》

대 한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 래 속 에 행복으 꽃 펴 나는

행해나갔다.

평원군 읍 4 6 인민반 김영철동무의 가정

《하루일을 끝낸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앉아 노래도 부르 고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시간

가는줄 모른답니다.》 이렇게 말하며 리영실동무는 우리를 가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처음 만나는 사람 들이였지만 이미 텔레비죤화면 을 통하여 얼굴을 익힌 그들과 의 대화는 참으로 즐거웠다.

평범한 가정의 노래가 직장 에 이르니 사람들의 말을 증명 은 물론 군안의 주민들에게 그 렇게 큰 힘이 될줄은 몰랐다는 세대주인 김영철동무의 이야 기며 평양으로 올라와 입선자 들의 공연에 참가하라는 련락 을 받고 온 가족이 흥성이였다. 는 둘째딸의 이야기, 노래경연 에 참가하고 돌아와 학생들의 열렬한 축하속에 어쩔줄 몰랐

년동맹일군인 막내딸 김옥심 동무의 이야기…

집식구들의 자랑어린 말속 에서 우리는 노래와 함께 꽃펴 나는 한가정의 남다른 행복과 기쁨을 엿볼수 있었다.

노래경연무대에서 관중의 절찬을 받던 때를 돌이켜보며 우리가 집안에 전문예술인경 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고 묻 자 둘째딸 김옥금동무가 선듯 대답을 하는것이였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군사복무 시절 중대예술소품공연을 맡아 이끈 경력을 가지고있답니다.》 아버지의 군사복무시절을 전문예술인경력에 서슴없이 내 세우는 딸의 그 말에 우리는 무척 흥미가 동했다.

알고보니 김영철동무는 30 여년을 조국보위초소에서 복무

년

한 제대군관이였다. 전쟁로병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국보위초소에 선 김영 철동무는 중대를 힘있게 이끌 면서 투쟁속에 노래가 있고 노 래속에 승리가 온다는 철의 진 리를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그 나날에 그는 조선인민군 중대 장대회에도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평범한 한가정에 넘쳐나는 랑만과 정서에도 절세의 위인들께서 새겨주신 철의 진 리가 소중히 간직되여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가슴은 뜨거 워났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는 우리 의 마음을 알아차린듯 리영실 녀성이 노래속에 꽃퍼난 가정 의 자랑을 이어나갔다.

언제나 가정에 랑만이 넘쳐 흐르는 속에 자식들도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이 되여 맏 딸과 막내딸이 7.15최우등 상수상자가 되여 지망하던 대 학으로 떠나갔고 둘째딸은 아 버지의 뒤를 이어 군사복무를 마치고 조선로동당원이 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어찌 그뿐이랴. 군사복무시 절 둘째딸이 중대에 없어서는 안될 손풍금수로, 독창가수로 떠받들렸다는 이야기, 당의 은정 속에 제정된 첫 어머니날을 쇠 던 그날 세 딸들이 군에서 조 직한 축하무대에 올라 한생을 교단에 바친 어머니에게 축하 의 노래를 불러주었다는 이야 기와 제 1 4 차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이후 중대장시절의 옛

비롯하여 노래와 더불어 가정 에 넘쳐나는 가지가지의 이야 기들은 끝이 없을상싶었다. 노래가 그대로 삶이 되고 행

였다는 김영철동무의 이야기를

복이 된 그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록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문득 우리의 가슴속에는 집

으로 들어설 때 세 딸들이 부 르던 《하나의 대가정》의 노래 소리가 파고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어버이 로 높이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 을 이룬 긍지와 행복으로 가슴 부풀게 하는 노래가사를 되새 기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온 나라 가정들에서 이렇듯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안겨주 신 신념의 노래, 승리의 노래 가 울려나오고있기에 우리 인 민은 고난도 시련도 혁명적랑 만과 열정으로 이겨내며 승리 의 신심드높이 사회주의강성 국가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것이라고.

신 현 규



- 신양고려약고려약고려약고려약고려약고려약고려약고 더중 많이 생 산하 위 자 해리 노력 하 하 고 음

보는 소형발전소

신천군 근로자협동농장 작 업 반 에 서 9

신천군 근로자협동농장 2 중 3 대혁명붉은기 제 9 작업

반에 가면 특색있게 건설한 소형수력발전소가 있다. 실개 천에서부터 근 200m의 물길을 따라 흘러든 물이 1 천여**㎡**의 양어장을 채우고 거기서 넘어나는 물로 전기를

생산하고있는것이다. 참으로 기발하게 착상하고 건설한 발전소이다.

처음 양어장을 건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물량 이 적기때문에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별로 낯을

돌리지 않았었다. 하지만 작업반장 리영철동 무는 양어장을 채우고 넘어나 는 물을 필요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까왔다. 비록 적은 물량이지만 효 과있게 리용할수 있지 않겠 는가 하는것을 두고 그는 작 업반원들과 토론을 거듭하 였다. 집체적협의를 거듭하 던 끝에 그들은 끝내 양어 장의 수위를 리용하여 수차

전문기관 기술자들도 이들 그리하여 작업반에서는 자 체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

내부예비를 탐구하여 관을 늘이는 일도 쉽지 않았고 전 기생산에서도 여러차례 실패

작업반에서는 끝내 기발 하게 만든 발전기를 설치하 여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하

운영과정에도 여러가지 기 술적문제들이 제기되였지만 그때마다 작업반장을 비롯한 반원들은 맥을 놓지 않고 합 리적인 방도를 모색하였고 이악하게 실천하여 끝내 전

기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성공 양어장의 풍치와 잘 어울리 게 일떠선 작업반의 소형발전 소에서는 지금도 전기가 생산 되여 작업반조명은 물론 반원

세해전 1월 어느날 땅거미 가 깃들무렵 한 녀인이 아들과 함께 통일거리를 지나고있었 다. 배낭을 등에 지고 짐보따 리를 하손에 든 녀인은 다른 이였다. 손으로 아들의 팔을 잡고 가고

락랑구역

령 도 자

있었다. 이때였다. 《함께 듭시다. 》라 고 하는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 다. 이어 녀인의 배낭과 짐보 따리가 한꺼번에 공중 쳐들리 더니 웬 젊은 청년의 어깨로

《워 이러…》 녀인은 고맙다는 인사도 변

훌쩍 옮겨지는것이였다.

변히 못하였다. 먼데서 오는 모양인데 어디까 지 가는가고 하는 청년에게 녀 인은 지방에서 아들때문에 평양 안과병원에 왔는데 시간도 늦었 구 해서 문수거리에 있는 려판 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희붐한 달빛으로 가슴에 단

정백2동 25인민반 한충일동무 메달이 반짝이는것을 본 청년은 《영예군인이구만요.》라고 하며 그에게로 다가가 부축하였다.

다는 영웅평원고급중학교 청

길가에서 문득 만난 청년이 아들처럼 허물없이 생각된 녀 인은 자기들은 안악군에서 살 며 아들이 군사임무수행중 부 상을 당하여 앞을 보지 못한다 는 사실까지 선뜻 털어놓았다. 그랬더니 청년은 말하는것

《려관이 먼데 거기까지 갈것 있습니까. 우리 집이 이 근방인 데 가서 쉬고 래일 아침 병원 으로 가는것이 어떻습니까?》 그의 집에서는 청년의 어머 니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아들 을 기다리고있었다. 라진해운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방학으

때마다 소박하게나마 성의를 다하는 어머니였다. 이때 문소리가 났다. 아들은

로 집에 와있는 참이여서 끼니

낯모를 사람들과 동행하고있 었다. 사연을 들은 어머니는 《참 잘했다. 》라고 하며 제꺽 그들

느닷없이 늘어난 식솔을 위

을 집안으로 이끌었다.

해 쌀바가지를 다시 드는 청년 의 어머니앞에서 녀인이 송구 해하자 어머니는 말했다. 《미안해마세요. 나도 한창땐

청

전연부대군의소의 간호원이였어 요. 전우들생각이 나는군요. 》… 지난해 12월 한 중앙기관 의 당조직앞으로는 안악군 읍 38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영 예군인 유충성동무의 어머니 가 쓴 편지가 와닿았다.거기 에는 자기들이 길가에서 한충 일동무를 처음 알게 된 사연이 며 해마다 치료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충일동무와 그의 어 머니 천순애녀성이 친혈육의 정 을 기울여 돌봐준 사실들과 함 께 충일동무의 가정에서 여러차 레에 걸쳐 많은 물자를 마련하 여 영예군인의 가정에 보내주고

있는 사실들이 적혀있었다. 한충일동무와 그의 가정이 한 영예군인을 위해 바쳐가는 진정의 화폭속에서 우리는 거 리에서 만난 생면부지의 길손 도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친혈육, 한식솔이 되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본다.

지난해 가을 평양안과 병원의 정문을 나서는 함 흥시 회상구역에서 사는 <u>으</u> 14살 난 김혜정학생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 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

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우 리의 사회주의제도인가. 혜정의 눈가엔 모든것이 ┗ 【생생히 떠올랐다. 평양과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에서 🗃 왔다고, 일찌기 부모를 잃 은 그가 난치의 병으로 앞 을 잘 보지 못한다고 더 왼 심을 쓰며 친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부어준 평양안과

병원 원장선생님을 비롯한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친부모의 사랑도 못 따 □ 를 지극한 정성에 떠받들 려 혜정은 병원에 입원한 지 두달만에 태여나 처음 \Rightarrow 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과도 같은 영상을 텔 레비죤으로 뵈올수 있었다. 함 흥으로 향하는 렬차에 올라 수 도의 거리를 바라보며 그는 마 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

습니다!)

얼마전 모란봉구역 긴 마을 1 동 5 5 인민반으로 이 인민보안기관의 한 일군 이 찾아왔다.

전우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

인민반의 매 세대들을 다 돌아보고나서 수도물 이 잘 나오지 않아 이곳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야 찾아와 미 안하다고 하며 마치도 그 🟲 것이 자기의 잘못인듯이 . 죄스러워하는 그 일군은 모란봉구역인민보안서 서

군 장 최금룡동무였다. 다음날 수도관 등 공사 에 필요한것을 가지고 인 뿣 민반을 찾은 그는 함께 온 인민보안원들과 그날로 수 도공사를 시작하였다. 주 L 민들에게 사소한 부담이라 도 줄세라 왼심을 쓰며 찬 L 노 물세다 천점을 쓰여 천 바람속에서도 땀흘려 일손 ⋙ 을 다그치는 그들의 헌신

적인 노력에 의해 공사는 짧은 기간에 끝날수 있었다. 집 집마다 맑은 물이 쏟아져나오는 광경앞에서 고마움에 목메여하 는 사람들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그저 인민의 심부름군

애 하 는

를 마련하였다.

연설하였다.

고 말하였다.

선꾸바단결위원회 위원장인 김승

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대

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박근

팡, 신홍철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꾸바공화국대사관

연회에서는 헤르만 에르민 페

그는 1959년 1월 1일 꾸바

인민에게는 새로운 려명이 밝아

왔다고 하면서 꾸바는 지난 56

년간 수많은 승리를 이룩해왔다

꾸바혁명을 압살하려는 제국

라스 알바레스특명전권대사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몇해전 어느날 원산시 싱 동 4 7인민반에서 살고있

는 특류영예군인 림상영동 무의 집으로 원산시 중청동 20인민반에 살고있는 박 천일동무와 상동 1 1 인민 반에 살고있는 백선희동무 가 들어섰다. 그들은 림상영 동무의 두손을 꼭 잡고 특류 영예군인동지를 이제야 찾

아와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 **홀** 부터는 자기들이 친동생, 친 자식처럼 잘 돌봐드리겠다 보 교이야기하였다.

그날부터 그들은 한집안 수 식솔이 되였다. 박천일, 백 선희동무들이 갖가지 생활 용품과 병치료에 좋은 보 약과 영양식료품, 기능회복 치료에 필요한 기재를 안 【▶고 영예군인의 집을 찾은 낮과 밤은 그 얼마였던가.

친혈육의 정과 더불어 날과 달이 흐르고 해가 바 뀌는 속에 드디여 림상영동무 는 자리를 털고 걸을수 있게 되였다. 오늘도 림상영동무의 집으로는 문두드리는 소리가

때없이 울리고있다. 를 돌리자는 결론에 도달하 본사기자 리 남 호 🗎 였다.

의 발기를 지지해주었다.

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 졌다. 를 거듭하였다.

였다.

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 하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꾸바혁명승리 56돐에 즈음하여 꾸바특명전권대사

제41차 정일봉 상 전국청소년학 생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평양과 평성시, 함흥시, 사리원 학생들이 참가한다.

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 에는 전국의 1만여명의 청소년

경기대회에서는 고급중학 교, 초급중학교, 소학교부문 종목의 경기들이 벌어지게 으로 나뉘여 롱구,배구,탁 된다.

본사기자 허명숙



김정은원수님께서

었다. 김승두 교 육위원회 위 원장, 관계 부문, 청년 . 동 맹 일 군 들,청소년

학생들이 개 막식에 참가 하였다. 전용남 년동맹중앙위 원회 위원장 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자라나는 새 세대 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선군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 게 키우며 온 나라에 체육열풍 개 막 식 이 을 세차게 일으켜 우리 나라를 20일 청춘 체육강국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거리 롱구경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기관에서 있 데 대하여 말하였다.

일뿐입니다.》

경

모든 선수들이 경기마다에서 평시에 련마한 높은 체육기술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도덕품 성,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보 여줌으로써 사회주의문명국건 설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

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 가 주악되는 속에 청년동맹기발 이 게양되고 선수들의 분렬행진 이 있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강반석 고급중학교와 남포시 항구구 역 은덕고급중학교 남자선수 들사이의 롱구경기가 진행되 였다.

꾸바혁명승리 56돐에 즈음하 꾸바인민은 더욱 힘찬 투쟁을 여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

벌려나갈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레스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 교육, 문화, 보건, 체육 등 여러 대사가 20일 대사관에서 연회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 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조

를 받는 근면하고 슬기로운 영웅 적조선인민과 친선협조관계를 맺 고있는것을 꾸바인민은 긍지로 생 각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꾸바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 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

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하 면서 그는 새해 2015년을 맞으 며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양형섭동지가 연설

하였다. 그는 꾸바혁명의 승리는 수세 기동안 착취와 억압을 받아오던 꾸바인민에게 자주적인 삶의 길을 열어주고 아메리카대륙에서 첫 사 주의자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회주의국가의 탄생을 선포한 력사

적사변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 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령도밑에 꾸바인민이 영웅적인 투 쟁을 벌려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

켜온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꾸바공산당 제6차대회 결정관철에서 꾸바인민이 거두 고있는 성과를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반 제자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형제적꾸바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라

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 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피뎰 까스뜨로 루쓰동 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꾸바 두 나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

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점

평화적환경보장은

평화보장은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는 초미의 문제이다.세계 진보적인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을 방지 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그러나 세계제패 를 꿈꾸는 미국은 여전히 힘의 정책을 버리지 않고 침략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남 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핵전쟁장비 들을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 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를 포 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 장이 떠도는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문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 와 직결되여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떠나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 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미국의 침략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에서 평 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인류앞에 나 서고있는 가장 절박하고도 엄숙한 과 제이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조선민족 이 둘로 갈라진 때로부터 70년이 되 여오고있다. 이 기간 조선반도는 세계 에서 제일 불안정하고 가장 복잡한 열 점지대로 국제사회에 인정되여왔다. 조미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나날이 격 화되여왔으며 조선반도에서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 여왔다.

새 세기에 들어와 조선반도정세는 더욱 악화되고 전쟁위험은 커졌다. 사 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 으로 번져질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 가 조성되였다. 국제사회는 커다란 불 안과 우려를 표시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주시하고있다.

국제무대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문제는 초점으로 되였다. 지난 시기 조 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를 남의 일처럼 대하던 적지 않은 나라 정치가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목소리를 높이 고있다. 국제무대에서 조선반도문제가

론의되지 않는 때가 거의나 없다. 그것 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가 주변나 라들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문제 와 밀접히 련관되여있기때문이다. 현 실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 고 전쟁위험을 막는것이 인류의 생존 과 발전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나라의 분렬로 장장 70년간 불행 과 고통을 당하고있는 우리 민족은 조 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절박성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절감하고있 다.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한 분렬로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했고 그후에는 불안정한 정전상태에서 수십년동안 전 쟁의 위협을 받으며 살지 않으면 안되 였다. 인류력사의 갈피를 들추어보아 도 그러한 민족은 이 세상에 없다.이 것은 우리 민족모두에게 있어서 비극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 는것은 우리 민족의 견지에서 보나 세 계평화애호인민들의 리익의 견지에서 보나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지금까지 조선민족앞 에 지닌 중대한 책임과 세계평화에 대 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평화제안들을 수많이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 하여왔다. 지난해에도 우리 공화국은 주동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 한 중대제안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 리가 내놓은 평화제안들은 오늘까지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조선반 도정세는 날로 더욱 격화되고있다. 이 것은 전적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때문이다.미 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 과 침략전쟁책동에 매여달리지 않았더 라면 조선반도에서 평화보장문제는 오 래전에 해결되였을것이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켜 왔다. 전후에는 조선반도에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최종적으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는 것을 대조선정책의 최종목적으로 내세 웠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정전이 실현 된 그 순간부터 끊임없는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소동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공 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공갈을 일삼았 다. 남조선에서는 북침전쟁연습이 벌어 지지 않은적이 없다.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은 그 내용에 있어서 매우 위험천만한것이다. 《키리 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만도 남조선강점 미군과 남조선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 일본주둔 미 군을 포함한 수십만의 대병력이 동원 되고있으며 추종국가들의 군사인원들 까지 투입되고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최신핵전쟁장비들이 빠짐없이 참가하 고있다.

미국이 벌려놓고있는 전쟁소동은 단 순히 연습을 위한것이 아니다.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가기 위한것이 다. 미국은 1940년대 후반기와 1950 년 조선전쟁전야에도 38°선일대에서 북침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에 미쳐날 뛰다가 전쟁의 불을 질렀다.

오늘 지구상에서는 적지 않은 군사 연습들이 벌어지고있다. 하지만 조선 반도에서처럼 그 지속성과 규모, 내용 에 있어서 위험천만하게 벌어지는 곳 은 없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 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이 조 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주되는 화근이라는것 은 명백하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대규모합동군사 연습의 회수와 강도를 높이고있는것은 단순히 우리 공화국만을 노린것이 아 니다. 힘으로 우리와 주변나라들을 억 제하고 동북아시아지역과 나아가서 세 계제패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라 대대적인 핵무력증강과 군사적공갈 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장악통제한다 는 내용으로 된 국방전략을 내놓았다. 그에 맞게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대 부분을 남조선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비해놓고있다. 핵무기로 무 장한 미군은 임의의 시각에 작전에 진 입할수 있도록 항시적인 전투동원태세 를 유지하고있다. 미국은 첫번째 목표 로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고 전 조선반도를 대륙으로 진출할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리고 그에 따

미국의 무분별한 핵전쟁연습소동으 로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인 핵전쟁위험 이 조성되였다. 남조선이 세계최대의 핵화약고라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이런 조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매 우 중요한 전략적요충지에 자리잡고있 고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첨예하게 얽 혀있는 조선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곧 핵전쟁으로 되며 그것은 주변나라 들에로 번져져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수 없다. 세계 수많은 나 라들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될 때마다 불안과 우려를 느끼며 평화보 장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하고있 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시대적과제이다. 진실로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나라라면 조선 반도의 평화보장문제의 심각성과 절박 성을 톡톡히 알고 진정을 가지고 그 해 결에 발벗고나서야 한다.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되고있는 조선반 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셔야 한다. 선차 적으로는 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중지 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선결조건이다. 전 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 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수 없다는것 은 자명한 일이다. 전쟁연습이 중지되 고 긴장이 완화되면 대화의 분위기가 마련될수 있고 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방도도 찾을수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완전히 가 시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 을 완전히 철회하는데 있다. 미국의 대 조선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에 전쟁위

험을 몰아오는 기본요인이다.

미국이 구태의연한 시대적관념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 대 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것은 조선 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 해서도 그렇고 미국자체의 안전을 위 하여서도 유익한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기본조건 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미국의 대조 선적대시정책과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 을 힘으로,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역할 을 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남조 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연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 화시켜오고있다. 미군이 남조선에 계 속 남아있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와 동 북아시아의 공고하고도 영원한 평화보 장에 대해 론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

남조선에서 미군의 완전철수만이 조 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가시고 진정 한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길이다. 모든 것이 명백하다.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고있는것은 미국이 자기 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할바를 다하지 않는데 있다.

우리 인민은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 이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 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정책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 을 수호하고 세계평화를 보장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 도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의 모 든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 하여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다.

학 남 리

위해

한 국제여론은 미국이 조선반도 금까지 그 어느 나라도 침략한적

이 없다.

워야 한다.》

으키고있다.

베닌, 우간다정계인사들 담화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 여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가 1일 담화를 발 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 는 신년사에서 전체 조 는 신변자기기 및 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大**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 동에 한사람같이 펼쳐나 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Ⅰ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 시였다.

조국통일문제를 사상 🔘 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 🕳 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 문제, 북남사 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 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 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 의 대전환,대변혁을 가 져오는 문제를 명시한 김정은최고령도자의 2015년 신년사는 조선 통일의 길을 환히 밝혀 준 불멸의 대강이다.

혁명적원칙과 자주적 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다각적 으로, 주동적으로 확대발 전시켜나갈데 대한 말씀 은 또 얼마나 정당한것인가.

나와 베닌사회주의당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하신 신년사의 조국통일부분 과 대외관계부분을 전폭적으 로 지지하면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과 세 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 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여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 집행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루 가라마가 8일 담화를 발표하

> 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하 경 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ㅂ▶는 신년사에서 나라의 국방력강화와 인민생활 **21** 향상, 사회주의경제강 국과 문명국건설을 위 0 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 주시였다. 또한 《조국해방 일

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구 호를 제시하시고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조선민족끼리리 념에 따라 민족의 대 단합, 대단결을 이룩하 여 조국통일문제를 민 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갈데 대하여 제안하시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천명하신 조선통일방안 을 우리는 열렬히 환영 하며 적극 지지한다. 남조선당국은 조선 의 평화애호적인 제안에 대

하여 더이상 흥정하거나 저 울질하지 말고 지체없이 호 응해나와야 할것이다. 미국은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힘 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고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정치

적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 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북남대화의 기운이 감돌고있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 리의 리념에 따라 북남관계력사를 새롭 게 써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위대한 호소에 하나와 같이 호응하며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전망하고있다. 우리 공화국 은 이미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실천적조치들을 실행하는 길에 들 어섰다. 세계가 이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 면서 북남관계가 개선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고있다.

그런데 심사가 바르지 않게 이것을 못 마땅하게 여기면서 고약하게 놀아대는 세력이 있다. 바로 미국이다.

새해벽두부터 12대의 《F─16》전투 기와 수백명의 병력을 본토에서 오끼나와 의 가데나공군기지에로 이동배치하기로 결정하였는가 하면 지난 13일과 14일에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과 야합하 여 조선동해에서 우리를 겨냥한 련합해상 훈련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머지않아 남조 선에서 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 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적움직임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력사적조치들에 대해 미당국 자들이 바르지 못한 소리를 하며 심술궂 은 속내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는것 과 때를 같이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북 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조선반도주변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 시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살벌한 전 쟁분위기를 고취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차

단하고 전략적리익을 챙기자는것이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우리는 얼마전에 미국에 《키 리졸브》, 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떻 게 나왔는가. 그들은 합동군사연습은 《방 어적》이며 《년례적》인것이기때문에 그만

둘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미국에 묻건대 그래 방대한 핵전쟁장 비들을 동원한 합동군사연습이 과연 방 어를 위한것인가. 또 그것이 조선반도 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 도움이 되겠 는가.

명백히 아니다.력대적으로 남조선이 서 벌어지는 미국의 대규모적인 침략전 쟁연습은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와 북남 관계악화를 몰아왔다.

미국이 벌리려고 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만 놓고보아도 그 렇다. 그것으로 말하면 미국의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의 산물로서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이다. 여기에는 수십만의 대 병력과 최신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고있 다. 전쟁연습내용도 상륙작전, 특공대작 전 등 우리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일판 되여있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방대한 병력과 살 인무장장비들을 들이밀어 남조선군부호 전광들과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 연습을 벌려놓고 악명높은 북침전쟁각본 인《작전계획 5027》에 따라 그 누구 의 《지휘세력 및 전략적거점에 대한 정 밀타격》, 《핵무기제거》, 상륙 및 기습작 전, 시가전, 《점령》후 치안작전 등과 같 이 극히 도발적인 불장난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미국의 《키 리졸브》、《독수리》합 동군사연습이 방어가 아니라 명백히 로 골적인 북침선제공격연습이라는것을 뚜 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과 벌리는 전쟁연습은 북남관계개선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 있다. 돌이켜보면 모처럼 마련되였던 여 러 갈래의 북남대화가 깨여지고 북남관 것이다.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계개선의 길이 가로막힌것은 다 미국의

미국은 이미 저들의 전략적중점을

전쟁연습소동때문이였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과 관련한 북남사이의 협의가 진행 되는 기간 조선서해의 직도상공에 《B-52》핵전략폭격기편대를 들이밀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감행하였 으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의 총포성으로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미국은 조선반도 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원하지 않 고있다. 미국의 전쟁연습소동이 계속되 는 한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이 마련 될수 없고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때문에 우리 의 주장은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중지 하는것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이바지하라는것이다. 이것은 통 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념원과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제사회 의 요구에도 부합되는것이다. 전쟁연습 으로 우리를 자극하여 북남대결을 고취 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막아보려 하는것은 어리석은짓이다.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우리의 평 화애호적노력과 대세의 흐름에 맞게 올 해에 최소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 군사연습이라도 중지함으로써 자기의 정 책전환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올해 조선반도에서 평화적 환경이 마련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미 국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을 중지하는가 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고 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만약 미국이 남조선과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강행한 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 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

하루빨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해 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 이고 꾸준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 회의 련대성의 목소리가 날로 높 아가고있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쑤스 안또니오 까를로 스 에르난데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올해 신년사를 지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가장 인간적이고 평화 적이며 합리적인 론리로 일관된 위대한 정치강령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 하고 긴장을 완화

하며 평화적환경 전쟁위헙제거를

을 마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 회 위원장 바씰레 오를레아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지난 해 영웅적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 들의 압살책동속에서 사회주의강 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 룩한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올해 에 실현하여야 할 투쟁목표들을 밝혀주시였다.특히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대단결로 조선 의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 가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 하시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 사회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현대성 운동을 보다 과감히 벌려나갈것 이다. »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조

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 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해에만도 긴장된 조선반도정 세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보 장하기 위한 중대제안들을 여러 차례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지지해나섰다. 우리의 중대제안들과 끊임없는 선당국과 야합하여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 오는 전쟁연습에 미쳐날뛰면서 정세를 더욱더 악화시켰다. 공정

와 그 주변에서 해마다 방대한 규

모로 끊임없이 벌리는 합동군사

연습이야말로 우리 공화국에 대

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평화

와 안전을 파괴하는 용납 못할 범

죄행위이라고 단죄규탄하고있다.

공화국친선문화협회는 뷸레찐에

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전략핵폭

격기들을 조선반도상공에 들이밀

어 핵무기사용을 위한 훈련을 벌

려왔다.이와 함께 핵항공모함

들, 잠수함들도 동원하였다. 서방

언론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이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위협〉

이러한 비난은 부당한것이다.

어느 나라와도 군사연습을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하고있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라면 누구나 이에 대해 공감하고

하지 않으며 자기의 무력을 다른 나라에 주둔시키지도 않고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조선이 평화

의 〈위협〉으로 되는것인가? 지난 60년이상 조선반도에서 는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전협 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이것을 평 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하여 시종 일관 노력하여왔다.》

벌가리아신문 《이스크라》는 다 음과 같이 평하였다.

연 침략적인 나라인가?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 시정책에 대처하여 핵무기와 강 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였지만 지

노력하는

다만 자체의 힘으로 강성국가

침략적인 나라는 바로 미국이

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압살책동에도 끄떡

없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대규모전쟁연습들을 당장 걷어치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

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은 수많은 사

람들의 지지와 련대성을 불러일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양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피터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우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를 일떠세우려 할뿐이다.

공동의 념원으로 되고있다. 나라의 통일을 갈망하는 북과 남의 인민들이 하나로 힘을 합친

꼭 성취되고야말것이다. 조선이 하루빨리 통일되고 조 선인민이 하나의 강토에서 화목 하게 살 그날이 반드시 올것이라

다면 머지않아 이 력사적위업은

고 확신한다.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 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성원하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명예위원장 호쎄 프란씨스꼬 아 길라르 불가렐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

경을 마련하기 위 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 ······· 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실 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 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가장 소중한 평 화적환경은 그 누가 마련해주는 것도, 그 무엇을 팔고 살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 지켜지고 오직 자기

의 힘에 의하여서만 담보된다. 우리는 자위적억제력을 천백 배로 더욱 다져나가는데 최대의 박차를 가하여 조국의 안전과 조 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혁명 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나갈것 이다.

김 국 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에 사로잡힌 미 국은 올해에도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강행으로 새해의 막 을 열었다.

미국은 지난 2일 우리에게 추가제재를 가할데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것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우리의 성의있는 공동조사제 안마저 거부한 미국이 무엇때문 에 자국의 《쏘니 픽쳐스》영화제 작보급사에 대한 싸이버공격사 건을 억지로 우리와 결부시키면 서 부랴부랴 이따위 추가제재에 매달리고있는가 하는것은 짐작 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 공화국 의 국제적영상을 어지럽히고 북 남관계개선의 길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얼마전 미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 연습이 《방어훈련》이기때문에

민족의 통일열망에 중지할수 없다고 하면서 3월초

부터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할것 이라는것을 공개하였다.

미국은 력대적으로 우리의 주 동적인 노력과 아량에 의하여 북남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조선반도정세가 완화될 듯 한 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각 종 모략사건들과 합동군사연습 으로 정세를 긴장시켰다.

2014년 한해만 놓고보아

미국은 년초부터 우리의 적 극적인 조치에 의해 북남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자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그것을 파탄시 키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남조 선당국의 관계자들을 황급히 미국에 불러들이고 저들의 군 사, 외교우두머리들을 서울에 보내여 남조선당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횡포 하게 가로막았다.

미국은 흩어진 가족, 친척상 봉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 남 조선군부호전세력들을 내몰아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포 사격훈련을 하도록 하였으며 판문점에서 북남적십자실무접 촉이 진행되는 시각에는 고의 적으로 핵전략폭격기편대를 들 이밀어 우리를 겨냥한 핵선제 타격연습에 광분하였다. 저들 의 악랄한 파탄책동에도 불구 하고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 족, 친척상봉행사가 개최되자 그것이 한창 진행되는 때에 대 규모의 최신전쟁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광란

적으로 벌려놓아 분위기를 극

찬물을 끼얹는 남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중지하고 고위급접촉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한 북남합 의가 보름도 안되여 휴지장으

로 되여버렸다. 8. 1 5를 계기로 온 겨레가 통일의 열망으로 끓어올랐던 시 기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계획인《맞춤형억제 전략》을 공식 적용한 《을지 프 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 끝내 강행하였다. 이 합동군사 연습의 강행으로 북남합의들은 또다시 엄중히 유린당하였으며 조선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 에 놓이게 되였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7월에

공화국정부 성명에 따라

제 1 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

행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죠 지 워싱톤》호핵항공모함전투집 단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도발 적인 해상합동훈련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온 겨레가 우리의 아량과 선 의있는 적극적노력으로 마련 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분 위기가 지속되여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고 있던 10월에 미국은 남조선 군부호전광들을 부추겨 서해 열점수역에서 우리 함정에 총 포사격을 가하여 군사적충돌 사태가 빚어지게 하였는가 하 면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벌려놓게 하여 우리를 심히 자 극하였다.

발에 대비한 최고도의 군사대 도로 흐려놓았다.이로 하여 북 와 관련한 북남실무회담이 진 비태세확립》에 대해 뗘벌이며

남조선군부호전세력과 야합하 여 옹근 한개의 전쟁을 치르고 도 남을 수십만의 대병력으로 《2014 호국》전쟁연습을 력 대 최대규모로 벌려놓았다. 그 러한 속에 련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썬더》를 발광적으로 벌 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에는 또 다시 첨예한 긴장상태가 조성 되게 되였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전 쟁책동으로 하여 우리의 북남판 계개선노력은 응당한 빛을 보지 못하였으며 조선반도에서는 긴 장격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 쟁위험은 더욱 커졌다.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현 정세는 강력한 핵억제력에 기초 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의 병진로선이 천만번 런이어 1 1월에는 《북의 도 정당하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하 여주고있다.

립 원

인권칩해의 왕초 미국을 비난 전 이란국회 의원 조흐레흐

엘라히안이 12일 한 발언에서 미국의 인권침해행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 각지에서 벌어진 반인종주의시위들은 미행정부 의 인권침해행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고 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인권침

해의 왕초라고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여러해

동안 중동지역의 테로그루빠들 을 뒤받침해주고 반이란테로행 위들을 지원하며 이란에 부당한 경제제재를 가하고있는것도 인 권침해행위의 대표적실례라고 까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집 아닌 집에서 추위에 떨고있는 미국인들